

# '92 하반기 양돈경기 전망

이종길  
(본회 홍보부 차장)

작년 추석이후 크게 떨어지기 시작한 돼지가격은 금년 들어서도 계속 생산비 이하를 밑돌다 5월에 들어서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당국은 돼지값이 회복되자 마자 마치 기다리거나 있었다는 듯이 “물가안정”이라는 미명하에 수입돼지고기 방출량을 1일 450톤까지 대폭 늘리고, 작년에 수입해 놓았던 돼지고기도 1일 50톤 정도씩 풀어대 양돈농가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양돈경기, 특히 돼지가격을 전망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단순히 국내 돼지고기 수요와 돼지 공급두수를 가지고 경기를 예측했다가는 정부당국의 인위적인 시장개입으로 인해 “오보”를 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내 돼지고기 수요

와 공급량에 따라 축산물 도매 시장에서 가격이 정상적으로 형성되다가도 외적인 요소, 즉 수입쇠고기 방출량을 대폭 확대한다든가 돼지고기를 수입해다 풀어버리면 당초 예측했던 가격이 크게 빗나가 양돈농가들로부터 본의아니게 “오보자”로 낙인찍히기 쉽다. 양돈경기를 예측하기란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정부의 수입물량 방출은 별도로 하고 국내 수요와 공급을 중심으로 양돈경기를 전망해 보기로 한다.

## 1. 돼지 사육동향과 전망

### 가. 돼지 사육동향

'92년 3월 현재 돼지 사육두수는 5백6만2천두로 1년전보다

〈표1〉월령별·규모별 돼지 사육 변동 추이

(단위 : 천두)

구	분	'90.6	9	12	'91.3	6	9	12	'92.3
총	마 리 수	4,251	4,566	4,528	4,487	4,636	5,069	5,046	5,062
월	2 개 월 미 만	1,315	1,431	1,248	1,383	1,464	1,594	1,417	1,609
	2 ~ 4 개 월	1,514	1,594	1,680	1,477	1,627	1,696	1,758	1,623
	4 ~ 6 개 월	774	896	926	928	812	1,030	1,074	1,017
	6 ~ 8 개 월	68	64	77	79	83	78	92	85
	8 개 월 이 상	580	581	597	620	650	671	705	728
모	6 - 8 개 월	53	48	58	65	68	63	72	66
	8 개 월 이 상	541	543	556	577	606	625	657	678
규	1 ~ 99 두	1,120	1,182	1,079	1,067	1,107	1,210	1,149	1,179
	100 ~ 499 두	1,562	1,669	1,710	1,698	1,748	1,899	1,902	1,897
	500 ~ 4,999 두	1,215	1,358	1,389	1,377	1,410	1,571	1,600	1,592
	5,000 두 이 상	354	357	350	345	371	389	395	394

12.8% (57만 5천두), 3개월 전보다 0.3% (1만 6천두) 증가했다. 이중 향후 돼지 생산두수를 결정하는 모돈두수는 74만4천두로 1년전보다 15.9% (10만2천두)나 크게 늘었고, 3개월 전보다도 2.1% (1만5천두)나 늘어나 90년 6월이후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돼지 사육호수는 12만 4천호로 1년전보다 1.6% (2천호) 감소했고, 3개월 전보다는 3.9% (5천호) 감소했다. 사육호수는 87년 12월이후 91년 6월까지 약 4년간 계속 감소세를 보였었는데, '90~'91년의 양돈경기 호조로 '91년 9월에 증가세로 돌아선후 6개월만에 다시 감소세로 반전된 것이다.

3개월전에 비해 총두수는 1만6천두 증가에 그쳤는데, 이는 주로 1~99두를 사육하는 규모에서 두수를 늘린 반면 100두 이상 규모에서는 감소했다. 그러나 평균 돼지 사육두수는 91년 6월의 36.8두에서 91년 12월의 39.1두로, 92년 3월엔 40.8두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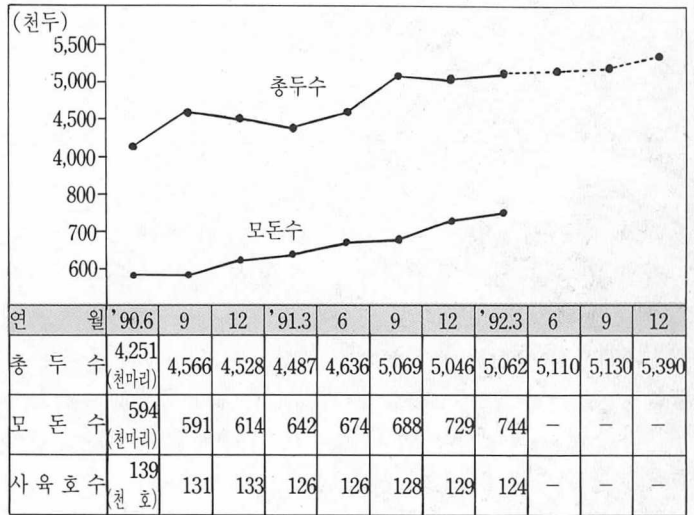
**나. 배합사료 생산동향**

'92년 4월중 양돈용 배합사료 생산성적은 33만2천톤으로 1년전에 비해서 14.5% 늘어났다. 젓먹이용은 9만7천톤으로 1년전에 비해 10.2%, 육성용은 13만7천톤으로 1년전에 비해

〈표2〉양돈용 배합사료 생산실적

연월	'91.3	4	5	6	7	8	9	10	11	12	'92.1	2	3	4
총 생산량	289	290	302	288	299	324	337	398	385	389	405	308	324	332
젓먹이용	82	88	97	95	101	112	116	126	109	105	106	81	87	97
육성용	122	115	117	115	123	133	142	178	181	183	185	136	139	137
모돈용	62	63	64	58	56	59	59	67	68	76	85	70	75	75
기타	23	24	24	20	19	20	20	27	27	25	29	21	23	23

〈표3〉돼지 사육두수 동향



19.1%, 모돈용은 7만5천톤으로 1년전에 비해 19% 증가했다.

그러나 작년 7월이후 배합사료 생산량이 계속 증가하다 금년 1월 40만5천톤으로 피크를 이룬후 생산량이 크게 감소, 작년 8~9월 생산량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다. 돼지 사육전망**

당분간 돼지 사육두수는 큰 폭의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현상유지를 한 후 연말에 가서 6~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최근의 모돈두수 추이와 사료생산량, 양돈농가들의 사육의향조사 등을 종합해 볼때 금년 9월까지의 3월 수준을 약간 웃도는 6월 5백11만두, 9월 5백13만두 정도가 예상되고, 12월에 가서 5백39만두로 6~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이유는 급격한 사육두수 증가와 돼지값 하락으로 양돈농가들의 불황에 대한 경제심리가 팽배해 있고, 도시화와 인력난, 분뇨처리 단속강화 우려 등으로 규모확대가 수월치 않기 때문이다. 작년 6월이

후 증가세로 돌아섰던 사육호수가 3월을 기점으로 다시 감소세로 반전된 것도 이를 반영해 준다 하겠다.

그러나 90년 12월 이후 계속 증가한 모돈두수가 생산한 자돈이 12월 이후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여 12월 이후 내년초에는 사육두수가 급증도 예상된다.

## 2. 돼지 가격동향과 전망

### 가. 돼지 가격동향

작년 추석을 전후로 하락하기 시작한 돼지가격은 금년 4월까지 6개월간 생산비 이하에서 맴돌아 양돈농가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했다. 다행히 5월 이후 회복세를 나타내 6월 4일 현재 지육 kg당 2,516원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에 따라 언제 또다시 가격이 곤두박질 칠지 불안한 가운데 있다.

5월 이후 돼지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연초에 이미 예상했던대로 지난해 여름의 수태율 저하에 따른 출하물량 감소와 계절적인 소비증가가 주원인이지만, 이와함께 금년 2-3월에 많은 양돈장에서 자돈설사로 폐사가 많았던 것도 가격상승의 큰 요인이다.

1~4월에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진 원인은 출하두수

〈표4〉돼지가격 동향

연 월	'91.4	5	6	7	8	9	10	11	12	'92.1	2	3	4
큰 돼지 (천원/두)	157	169	184	182	180	164	140	119	113	115	109	110	115
새끼돼지 (천원/두)	53	54	58	58	59	59	57	50	46	44	40	38	37
도매가격 (원, 지육kg)	2,695	2,958	3,174	3,143	3,039	2,716	2,253	1,975	1,886	1,921	1,761	1,906	1,998

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도축두수는 작년 9월 이후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하다 금년 1월에 85만두로 최고를 기록했고, 금년 4월까지 출하두수가 작년에 비해 14%나 크게 늘어났다.

또한 출하체중은 돼지값 하락에 따른 조기출하로 작년 10월에는 83kg까지 줄어들었으나 그후 다시 증가해 현재는 92~93kg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나. 돼지 가격 전망

금년도의 돼지가격은 5~6월의 강세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약세가 예상된다.

90년 6월 이후 계속 증가한 모돈에서 태어난 자돈들이 11월부터 본격 출하될 것으로 예상돼 11월 이후에는 보다 큰 폭의 하락도 예상된다. 그러나 금년 2~4월의 사료생산량이 자돈설사로 인한 많은 폐사로 크게 감소해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돼지가격 하락폭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정부의 수입쇠고기 대량방출이 계속될

경우 대체관계에 있는 돼지고기 소비가 위축돼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12월에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서 얼마만큼의 소비증가가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와 우리나라 경제가 언제 회복되느냐에 따라 돼지 가격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로 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도 있으나 광역의회 선거와 지난번 총선에서 보듯 선거가 돼지고기 소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무역수지 적자와 건설경기 위축,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라 큰 폭의 소비확대는 기대할 수 없고, 6월 11일부터 시작되는 한, 미·뉴·호의 쇠고기 수입 협상에서 쿼터량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돼지가격과 큰 연관이 있다고 생각된다. ■